

## 바이오플터 운전온도의 폐가스 처리효율에 대한 영향

임광희\*, 박상원<sup>1</sup>  
 대구대학교 화학공학과, <sup>1</sup>식품공학과  
 (khlim@daegu.ac.kr\*)

## Temperature effect on the biofilter performance to treat waste-air containing VOCs

Kwang-Hee Lim\*, Sang-Won Park<sup>1</sup>  
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nd <sup>1</sup>Food Engineering, Daegu University  
 (khlim@daegu.ac.kr\*)

### 1. 서론

미국의 EPA에서는 특정유해물질(priority pollutants)로서 톨루エン과 TCE (trichloroethylene) (이상 aromatic 탄화수소) 등을 포함한 129개의 유기화합물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.[1] 국내에서는 2000년에 특별규제대상으로 메타놀, 에틸알콜, 부탄, 휘발유 및 TCE 등 31종의 VOC를 지정하였다. 또한 대기의 총량 규제실시가 요구됨에 따라 용제를 회수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희박 폐가스의 처리가 불가피해졌다. 이와 같이 낮은 농도의 생분해성 휘발성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다량의 공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플터 기술은 경제성에 있어 더욱 큰 이점이 있어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.[2, 3] Lim and Park[4]은 여러가지 운전부하의 조건에서 친수성인 에탄올의 inlet load량과 농도를 변화시켜서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를 고정화한 바이오플터에서의 시간에 따른 처리추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바이오플터 실험을 수행하였고 elimination capacity는 약 100g/m<sup>3</sup>/h이었다. 이번 연구에서는 폐가스에 포함된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하여,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를 미생물 담체에 고정화한 바이오플터를 여러 온도조건에서 운전하여 바이오플터 성능에 대한 적정온도를 평가하고, 이 적정온도를 Lim and Park[4]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. 한편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를 여러 온도에서 액체배지에서 배양한 후에 각각의 미생물 성장률을 비교하고 배양 적정온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이오플터 성능에 대한 적정온도와 비교하고자 한다.

### 2. 실험

#### 2.1 바이오플터 시스템의 구성

실험의 수행을 위하여 아크릴을 소재로 한 바이오플터를 downflow방식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반응기를 제작하였다. 당 바이오플터 실험은 광촉매와 바이오플터 hybrid 시스템에서 에탄올의 처리효율의 비교를 위한 control로서 4개의 sampling port를 각각 설치하여, 각 port의 바이오플터 높이에서의 폐가스의 처리분석을 하였다. 바이오플터는 담체를 바이오플터 상부관 및 하부관에 18cm 및 20cm 각각의 높이로 채워 넣어서 바이오플터의 총 유효높이는 38cm로 하였다. 바이오플터에는 평균지름(Dp)이 3mm인 입상 활성탄(GAC)과 0.6mm인 compost의 각각을 같은 부피로 혼합한 담체를 사용하였다. 바이오플터 시스템에 대한 공정도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.

Table. 1 Theoretical values of operating condition from each stage of biofil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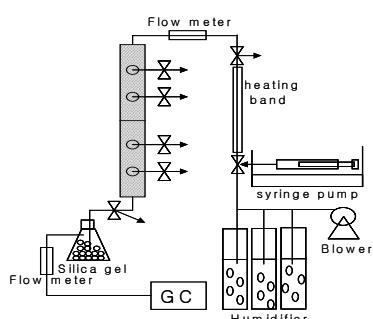


Fig.1 Schematic diagram of biofilter system

단계(times) 이론값	1단계 (1-8)	2단계 (9-26)	3단계 (27-42)	4단계 (43-58)	5단계 (59-77)
$\dot{m}$ ( $\mu\text{l}/\text{min}$ )	0.83	1.67	2.5		5.0
Q ( $\text{L}/\text{min}$ )	0.25	0.5	0.5	0.5	1.0
$C_{go}$ (ppm)	1,450	1,450	2,180	2,180	2,180
$C_{go}$ ( $\text{g}/\text{m}^3$ )	2.62	2.62	3.93	3.93	3.93
$\tau$ (min)	2.98	1.49	1.49	1.49	0.75
Inlet load ( $\text{g}/\text{m}^3/\text{h}$ )	52.75	105.50	158.26	158.26	316.51

※  $\dot{m}$ : ethanol injection rate at a syringe pump

Q: air flow rate

 $C_{go}$ : feed concentration $\tau$ : retention time (유효높이): 0.38m

## 2.2 미생물 접종

배출 VOC 중에서 친수성 VOC인 에탄올을 처리대상 VOC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해능이 있는 미생물을 바이오플터의 담체에 접종하기 위하여 에탄올과 톨루엔에 분해능력을 보이는 *Pseudomonas putida*를 KCTC에서 분양 받아 각각 배양하였다. *Pseudomonas putida*는 nutrient broth(Merk사) 8g을 pH 7인 중류수 1L에 녹인 다음에 멸균기에서 121°C에서 15분간 멸균시킨 후에 clean bench 안에서 petri-dish 안에 있는 미생물을 백금이로 긁어서 조제한 medium에 떨어뜨려서 shaking incubator에 넣은 후에 26°C에서 200rpm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. 이 때에 optical density를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600nm의 파장에서 3시간마다 측정하여 흡광도가 0.8 이상일 때에 에탄올을 함유한 폐가스처리용 바이오플터의 담체에 접종하였다.

## 2.3 VOC 분석방법

Flame ionization detector(FID)와 Supelco에서 구입한 SUPELCO WAXTM-10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(30mx0.53mmx2.0  $\mu\text{m}$ )을 장착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피(Shimazu, GC-17AAFw Ver.3)를 RIGAS에서 주문하여 구입한 에탄올(99.8ppm)의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.

## 2.4. 바이오플터(B)의 실험 및 운전

Lim and Park[4]의 운전부하조건(표 1) 중에서 3단계를 선정하여 표 2와 같은 온도조건에서 폐가스에 포함된 에탄올에 대한 시간에 따른 바이오플터에서의 처리추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27일(2회/1일의 회수로 총 54times 실험)동안 바이오플터 실험을 수행하였다. 바이오플터실험 1단계(30°C)에서 바이오플터의 각단에서 흡착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20time까지 충분한 실험기간을 주었고 2(25°C), 3(35°C) 및 4(30°C)단계에서는 각각 실험기간을 10times로 하였다. 마지막 5단계(40°C)에서는 4times로 하였다.

Table. 2. Temperature of each stage of biofilter-operation

Stage(times)	I (1-20)	II (21-30)	III (31-40)	IV (41-50)	V (51-54)
Temperature(°C)	30	25	35	30	40

### 3. 결과 및 고찰

바이오플터에서 에탄올만을 함유한 폐가스의 처리를 위하여 I-V단계의 각각 주어진 온도에서 운전하였을 때의 바이오플터의 feed inlet, 처리가스의 exit 및 각 sampling port에서 측정한 에탄올의 농도 추이는 그림 2와 같다. 한편 바이오플터의 운전에 있어서 각 단계가 지나갈 때에 exit에서 removal efficiency의 거동을 그림 3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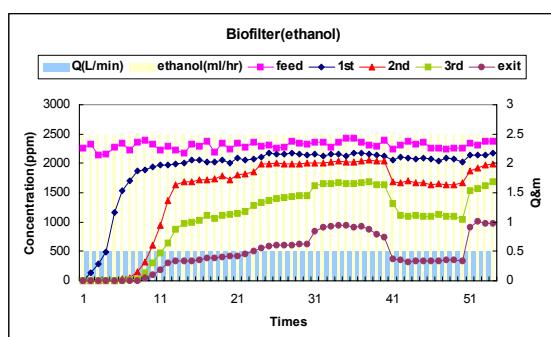


Fig. 2.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of a biofilter at each sampling port versus experimental tim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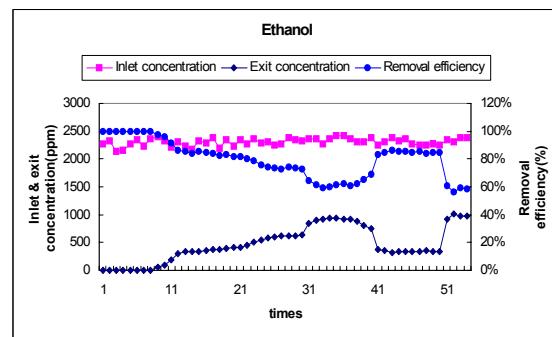


Fig. 3 Removal efficiency, inlet and exit concentrations versus times

1단계(1times부터 20times까지)에서는 30°C에서 각각의 sampling port에서의 톨루엔 농도의 시간변화에 따른 거동, 즉 각 파과곡선들의 거동에서 흡착에 의하여 포화되는 순서가 제 1단, 2단, 3단 및 4단의 차례임을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. 또한 각 단에서 흡착이 포화되고 통과하는 폐가스의 농도는 먼저 포화될수록 커짐을 마찬가지로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. 따라서 1단계의 전반부에서는 removal efficiency가 거의 100%를 보여주었으나 흡착이 포화됨에 따라서 exit에서 파과곡선의 거동이 상승하여 후반부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removal efficiency가 약 80%를 보여주었다. 2단계(21times-30times)에서는 운전온도를 25°C로 설정하여 바이오플터를 운전한 결과 exit에서 처리된 폐가스 농도는 1단계보다 상승하였고 removal efficiency는 약 75%로 감소하였다. Lim and Park[4]의 실험에서 표 1에서와 같은 제 4단계의 초반에 운전온도를 26°C로 유지하다가 4단계 후반에 30°C로 운전온도를 증가시킨 결과 각 단에서의 처리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데 이것은 이 실험결과와 일치한다. 3단계(31times-40times)에서 온도를 35°C로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exit에서 처리된 폐가스농도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또 다시 상승하고 removal efficiency는 그림 3에서처럼 약 65%까지 감소하였다. 4단계(41times-50times)에서는 지금까지는 1단계에서 적정운전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온도를 다시 30°C로 설정하였다. 그 결과 바이오플터 각 단에서의 폐가스의 농도는 1단계의 농도와 거의 일치하였다. 5단계(51times-54times)에서는 운전온도를 40°C로 증가시켰는데 exit에서의 처리된 농도는 가장 높았고 removal efficiency는 다시 약 60%까지 감소하였다.

바이오플터의 운전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시간이 지나갈 때에 elimination capacity 및 inlet load의 거동을 그림 4가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각 시간에 서로 대응되는 inlet load와 elimination capacity를 그림 5에서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. 그림 4에서와 같이 1단계 전반부의 elimination capacity는 약 160g/m<sup>3</sup>/h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은 흡착능력과 생분해의 합에 의한 것이고 흡착이 포화되고 생분해만의 elimination capacity는 1단계 후반부에 보여주는 약 130g/m<sup>3</sup>/h이어서 30°C에서 흡착되지 않은 담체의 흡착능력에 의한 elimination capacity는 약 30g/m<sup>3</sup>/h임을 보여준다. 2 및 3단계에서

elimination capacity는 각각 120 및  $100\text{g/m}^3/\text{h}$ 로 감소하였다. 4단계에서  $140\text{g/m}^3/\text{h}$ 로 다시 증가하였고 5단계에서  $100\text{g/m}^3/\text{h}$  이하로 다시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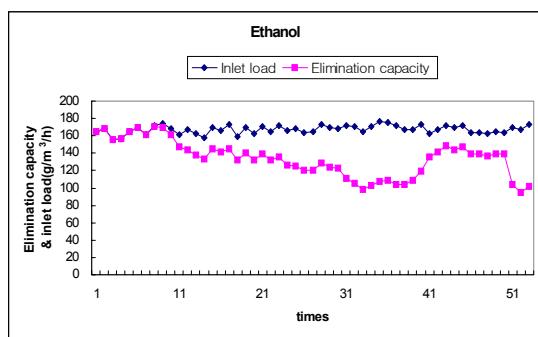


Fig. 4 Elimination capacity( $\text{g}/\text{m}^3/\text{h}$ ) and inlet load versus tim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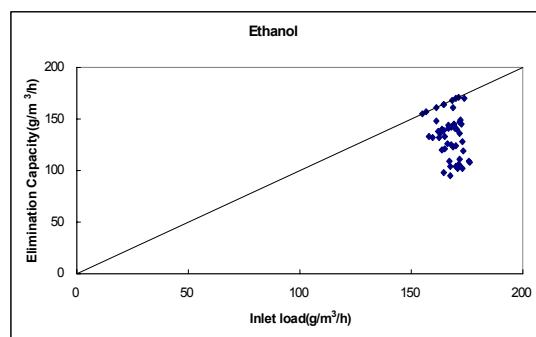


Fig. 5 Elimination capacity( $\text{g}/\text{m}^3/\text{h}$ ) versus inlet load of ethanol at the exit of a biofilter

한편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의 최적배양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공정(바이오필터)적정온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-40°C의 온도조건에서 배양하고 균주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25°C에서 가장 큰 turbidity를 보였다.

#### 4. 결론

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를 같은 부피의 활성탄과 compost로 이루어진 미생물 담체가 채워진 바이오필터에 미생물배양액을 recycle함으로써 고정화하였다. 농도가 2180ppmv이고 inlet load가  $158\text{g/m}^3/\text{h}$ 의 에탄올을 포함한 폐가스를 20-40°C의 온도조건에서 바이오필터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. 각각의 온도에서 에탄올의 removal efficiency를 비교하였는데 30°C가 최적운전온도이었고 Lim and Park[2004]의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. 한편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의 최적배양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공정(바이오필터)적정온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-40°C의 온도조건에서 배양하고 균주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25°C에서 가장 큰 turbidity를 보였다. 따라서 *Pseudomonas putida*(KCTC1768)의 공정(바이오필터)최적온도는 30°C이고 최적배양온도는 25°C로서, 공정(바이오필터)최적온도가 최적배양온도보다 5°C 정도 높았다.

#### 5. 참고문헌

1. Metcalf and Eddy Inc (1996), Wastewater Engineering: Treatment, Disposal and Reuse. Tata McGraw Hill Publishing Company, New Delhi.
2. Ottengraf, S. P. P. (1986), Exhaust gas purification, Biotechnology (H.J., Rehm, G. Reed, eds) Vol. 8, pp.426-452, VCH, Weinheim, Germany.
3. Sorial, G. A., Smith, F. L., Suidan, M. T. and P. Biswas (1995), Evaluation of trickle bed biofilter media for toluene removal, *Journal of the Air & Waste Management Association*, **45**, 801-810.
4. Lim, K. H. and S. W. Park (2004), The treatment of waste-air containing mixed solvent using a biofilter; 1. transient behavior of biofilter to treat waste-air containing ethanol," *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*, **21**(6), 1161-1167.